

정기후원

(자동이체로 더 편리해진 후원)

심포니 송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024 시즌 후원 회원 모집



목표회원: 100명

후원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마스터즈 시리즈 티켓 할인 (10%) *1회 한

매달 활동사항과 공연정보 제공

오픈 리허설 참관특혜

연 2회 살롱 콘서트 초청

예술감독과의 연례 대화

DOUBLE THE BRAHMS

브람스
페스티벌

지휘
함신의

첼로
주연선 바이올린
김다미

브람스 | 세레나데 제1번 라장조
Brahms | Serenade No.1
in D Major, Op. 11

브람스 |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가단조
Brahms | 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in a minor, Op.102

06.27

THU 7:30PM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이사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감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3 - 2024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노루그룹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주)EG

말러 Circle

한영재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어스빌리지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전동규
(주)다진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주)제이씨케미칼
(주)풍산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김윤자
최영애
장원기
한태준
홍종관
(주)동효

쇼팽 Circle

안정근
송백규
최승식
(주)KNW

모차르트 Circle

서석호
신영만
양서윤
양세이
원장희
윤석애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엔피코리아
법무법인산경

하이든 Circle

고윤영
권영성
권용관
김성렬
김종혁
김호진
박명우
봉옥
신갑순
윤현숙
이근혁
이미영
이병권
장민경
장윤정
전인평
조백일
최승갑
최인규
한문성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심포니 S.O.N.G(심포니송)’은 지휘자 함신익이 창단한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들과 음악가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 창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심포니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 책임이라는 함신익의 신념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이뤄낸 결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 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 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한순간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연을 통해 그의 잠재된 음악적 에너지를 표출하였고 이에 쏟아지는 찬사는 모두가 공감할 만했다. “I am very lucky to live somewhere with gloriously beautiful music. 이 아름다운 음악 어딘가에 숨 쉴 수 있어서 나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다.” 2014년 창단 음악회에서 쏟아진 평가 중 하나의 문구에서 심포니송의 존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음악평론가 류태형은 “순도 높은 집중력으로 그 정갈함이 전달된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객석에 앉아 무대 위 예술가와 공감하는 행복한 시간의 소중함을 너무나 많이 새겼다.”라고 했으며 코로나가 창궐할 때의 공연에는 “마스크를 한 채 무대를 지켜보던 나는 전염병이라는 고난을 극복해 나갈 힘을 얻었다. 희망, 재난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낸 작곡가 베토벤이 21세기의 청중에게 주는 선물이었다.”라고도 평했다. 심포니송이 다정한 위로와 감성만을 표방한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클래식 연주를 넘어서서 새롭고 낯선 현대곡을 연주하고 초연하는 도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작곡가 성용원은 “심포니 송이 꾸준히 현대곡을 연주하며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걷는 점에 대해 작곡가로서 매우 감사하고, 이는 현대곡이 외면받는 한국 음악계의 기적이라 생각한다.”라고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 지금 우리의 팍팍한 지구살이의 위기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2022년에는 ‘모차르트와 스크리아빈’

공연 마지막 앵콜곡으로 우크라이나 국가를 연주했다. “마지막 앵콜곡인 우크라이나 국가. 저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는데 초대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한 관객의 토로는 가슴에 먹먹하게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사명 의식이 깃든 지휘자 함신익

함신익의 고군분투는 실상은 예술을 접하는 유니크한 태도와 시선에 닿아 있다.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형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이 된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와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 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

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예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세계가 함께 즐기는 새로운 음악의 길 제시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

감독, 음악감독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해 냈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 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 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작 루돌피움, 스페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등과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하였거나 그곳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구이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최근 2024년 5월 10일,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쓰촨성 심포니홀 개관 공연을 선보였다. 쓰촨성 음악가협회 명예회장이자 유명 작곡가인 아오창군 교수는 “함신익 지휘자가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하며 장엄한 추진력과 강한 예술적 매력으로 청중을 놀라게 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함신익과

심포니송

———— 함신익과 심포니송을 지켜본 사람들은 지난 10년을 ‘孤軍奮鬪(고군분투)’라고 표현한다. 고군분투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벽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하며 매분 매초를 벽차게 10년을 살아냈기 때문이다. —————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Jiyoung Ha

심포니 송의 첫인상

저와 심포니송과의 인연은 정식으로 창단되기 직전 2013년부터 함께 하였습니다. 심포니송은 당시나 현재나 젊은 단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많은 음악인들의 등용문이 되어주는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더블 콘체르토는 흔하게 연주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레퍼토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2020년 이후로 처음 연주하는거라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하노버 국제콩쿨에서의 경험에 대한 회고

그 당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우승을 하였는데요, 당시 심한 몸살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롯이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45분 길이의 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를 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 협주곡으로 2019년에 심포니송과 협연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주 계획

여름에는 프랑스로 가서 다양한 페스티벌에 참여할 계획이구요, 2024년 하반기에는 보다 더 다양한 협주곡의 레퍼토리를 연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김다미는 2012년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파가니니 국제콩쿠르에서 1위없는 2위 및 최고의 파가니니 카프리스 특별상, 일본 나고야 무네츠구 국제콩쿠르 우승 및 특별상을 받았다. 이 외에 퀸 엘리자베스, 인디애나, 샌다이, 마이클 힐 등 다양한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김다미는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데뷔 독주회 전석

매진, 미국 라비니아 페스티벌과 옐로우반 페스티벌, 크론베르크실내악 축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세종실내악축제 등에 초청받아 참여하고 있다. 기톤 크레머, 스티븐 이설리스,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이타마르 골란 등의 저명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다. 2015년 세계적인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데뷔무대를 전석 매진시켰으며, 2018년 슬로박 필하모

닉 오케스트라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레두타홀에서 녹음한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 음반을 발매, 슬로바키아 현지와 한국에서 성공적인 투어를 가졌다. 2022년 7월에는 전곡 바이올린 소품이 수록된 두 번째 정규 앨범[TIMEPASS]가 SONY CLASSICAL에서 발매하였다. 2020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Kyutai Shim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이번에 너무나 멋진 브람스 2중주 곡을 심포니송과 김다미 바이올리니스트와 연주하게 돼서 기대가 큼니다. 많은 기교를 필요로 하고 화려하면서도 멋스러운 멜로디가 매력인 브람스의 곡을 실력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씨와 하게 돼서 행복하고요. 심포니 송과 함심익 지휘자님을 만날 생각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저는 기독교인이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힘든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요. 관객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전하고 싶은 저의 진심이 닿길 바라며 연주합니다.

앞으로의 연주 계획

이번 6월은 베토벤 전곡 연주회로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을 보내고요, 하반기에는 강남 심포니, 청주시향과 협연이 예정되어있고, 저의 친정 직장인 서울시향의 객원수석으로 여러번 찾아뵈실 예정이고요. 또 후학을 양성하는게 제 본분이기도 해서 저의 학생들 지도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첼리스트 주연선

주연선의 타고난 음악성과 지독한 연습은 첼리스트로서의 재능을 일찍부터 빛나게 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이미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젊은이의 음악제 출연 등 일찍이 음악영재로서의 면모를 드러냈고, 솔리스트 앙상블과 연주하는 모습이 MBC TV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다. 예원학교 수석 입학 및 졸업하고, 서울예고에도 수석으로 입학한 그는 고교 재학 중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The Curtis Institute of Music에서 학사를, Rice University에서 석사를 받았다. 주연선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미국 켄사스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Associate

principal을 역임하였으며 파르텍(크네히트), 첼리스타 첼로앙상블 수석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Philadelphia Orchestra, KBS교향악단, Eastern Connecticut Symphony Orchestra, 서울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하였고 부산 MBC 콩쿠르 첼로부문 1위 및 전체대상, Philadelphia Orchestra Greenfield Competition Senior 부문 시상자 선정, 서울예고를 빛낸 음악가상 운파(임원식)상, Eastern Connecticut Symphony Orchestra Competition 1위, Sorantin International Competition 전체대상, 2010년 예술의전당 영아티스트로 선발, 2013년 아트

실비아 실내악 오디션 피아노 트리오 부분 대상 수상 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음악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2016년, 그의 첫 솔로 앨범인 바흐 무반주 전곡 음반(SONY)이 발매되는 동시 전곡 독주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고, 2021년 첼로 소품집으로 꾸민 그의 두번째 솔로 앨범 'Romantique'이 발매되어 화제가 되었다. 주연선은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현대차 정몽구 장학재단에서 지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Johannes Brahms

(1833 ~ 1897)

요하네스 브람스



- Brahms -

Serenade No.1 in D Major, Op. 11

브람스 - 세레나데 제1번 라장조 작품번호 11

- | | |
|----------------------------------|----------------------|
| I. Allegro molto | 아주 활기찬 빠르기로 |
| II. Scherzo : Allegro non troppo | 스케르초 : 적절한 빠르기로 |
| Trio : Poco più moto | 트리오 : 조금 더 빠른 움직임으로 |
| III. Adagio non troppo | 침착하고 편안하게 |
| IV. Menuetto I - Menuetto II | 미뉴에트 I - 미뉴에트 II |
| V. Scherzo : Allegro - Trio | 스케르초 : 활기 가득하게 - 트리오 |
| VI. Rondo : Allegro | 론도 : 활기찬 움직임으로 |

- Brahms -

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in a minor, Op.102

브람스 -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02

- | | |
|------------------------|--------------|
| I. Allegro | 활기찬 빠르기로 |
| II. Andante | 편안한 걸음걸이로 |
| III. Vivace non troppo | 적당히 빠르고 경쾌하게 |

Johannes Brahms

Serenade No. 1 in D major, Op. 11

브람스

세레나데 제 1번 라장조 작품번호 11번

브람스는 1857년과 1858년에 플루트, 두 개의 클라리넷, 바순, 호른, 현악 사중주로 구성된 앙상블(nonet)을 위해 세레나데 1번을 작곡하였다. 1857년 말까지 4개의 악장(제1, 3, 4, 6악장)을 완성하고 1858년 가을 스케르초의 두 개의 악장(제2, 5악장)을 추가하여 1859년 출판한다. 당시 그는 슈만의 문하생(apprentice) 기간을 갓 벗어나 데트몰트에 거주하며 데트몰트 공작의 궁정에서 교편생활을 잠깐 하였는데 이때 오케스트라와 직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향악 작품 작곡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는 1858년 9월 요제프 요아힘 앞에서 피아노로 이 곡을 선보였는데, 앞서 언급되었듯 브람스에게 있어 매우 영향력 있는 음악적 조력자이자 절친이었던 요아힘은 그에게 이를 관현악으로 편곡할 것을 조언한다. 베토벤에 대한 극단적 존경과 이로 인한 교향악 작곡에 대한 열망과 두려움이 컸던 브람스는 수개월간 이를 두고 고심하였고 마침내 이듬해인 1860년 이를 관현악으로 편곡하여 '교향곡'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앞서 1부에서 연주될 이중협주곡이 브람스의 최후의 관현악 곡인데 반해 이 세레나데는 그의 최초의 교향악 작품이다. 작품에는 훗날 드러나게 되는 작곡가 본인만의 독특한 음악적 어휘와 관현악법이 이미 작품 도처에 풍부하게 담겨있다.

세레나데 1번은 소편성의 노랫으로 초연되었을 때 이미 큰 호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람스는 관현악 버전을 만든 후 소편성 악보와 파트를 모두 파기하고 교향악 버전만 남긴다. 그는 이 곡을 처음에 '교향곡'이라 부르고 싶어 했지만 이후 교향악 작곡에 대한 성급했던 도전이었다는 스스로의 평가 때문인지 이내 마음을 접고 요아힘의 제안에 따라 "교향곡-세레나데"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훗날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D장조 세레나데'로 확정 짓는다. 참고로 브람스는 이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드디어 제 1번 교향곡을 완성하게 된다. 세레나데(영어: serenade, 이탈리아어: serenata; 소야곡)는 17-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연흥(燕興)을 위한 가벼운 연주곡을 일컫는다. '저녁음악'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야외 음악이었던 것이 뒤에는 연주회용 악곡으로 되었다. 요즘으로 치면 가벼운 경음악 내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영화 배경음악 정도로 비견할 수 있다. 해질녘 사랑하는 여성이 기대고 있는 창가에서 남성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인 '성악 세레나데'와는 구별된다. 요아힘은 1859년 3월 28일 함부르크에서 소편성의 원곡을 지휘, 초연했으며, 1860년 3월 3일 하노버에서 대편성 최종 버전 역시 지휘, 초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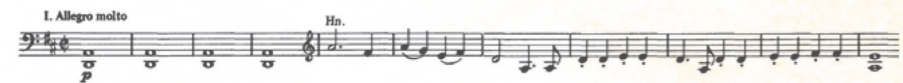
Johannes Brahms, Serenade No. 1 in D major, Op. 11

Brahms composed his Serenade No. 1 in D major, Op. 11, between 1857 and 1858. Initially written for a nonet, he later orchestrated it for a full orchestra in 1860, marking his first foray into symphonic composition. Influenced by his time at the Detmold court, where he had opportunities to work closely with an orchestra, Brahms began to develop his distinct orchestral voice. This work, embodying the light-hearted spirit of a serenade, reflects Brahms' early symphonic ambitions and his evolving compositional style.



1악장 Allegro molto

전원풍의 1악장은 비올라와 첼로에 의한 완전 5도의 팡파르로 시작된다.



[1악장 제 1주제]

이 위에 호른에 의한 사냥 혼의 제 1주제가 없으면서 초저녁의 평화로운 서부 독일의 자연이 펼쳐진다. 클라리넷이 반복하면서 집시풍의 정서를 풍기고 나면 오케스트라 튜비는 첫 주제를 힘차게 외친다. 제 2주제는 그의 교향곡 중 소나타 악장에서의 제 2주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따른다. 발전부에서 주제를 다루는 화려한 그의 작곡 기술은 변주곡의 대가로 명성을 떨칠 그의 앞날에 대한 데자뷔(기시감 既視感)처럼 친숙하다. 코다에서 베이스와 팀파니가 27마디 동안 D음을 이끌어 악장을 끝내려는 듯 보이다가 플루트와 첼로가 애매한 듯 부연 설명하는 대목이 몽환적이다. 이 계곡과도 같은 첨가된 제 2코다는 사실 참 아름다워 전원풍의 평화로운 악장을 마무리하기에 적절하다.

Scherzo : Allegro non troppo - Trio : Poco più moto

두 번째 악장은 세 도막 형식의 스케르초로 그의 교향곡 제2번 4악장과 3번 4악장의 텍스처와 유사하게 현의 유니슨이 잔잔하게 물결치면서 시작된다. 이 주제는 22년 후 그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에서 인용된다.



[2악장 주제]

3악장 Adagio non troppo

클라리넷과 호른이 주고받는 저녁노을 아래 목동의 뿔피리가 제 1주제를 이루고 장엄함 가운데 느껴지는 함부르크 풍의 우울함이 제 2주제로 연결된다. 호른은 브람스 특유의 애절한 선율을 노래하면서 이 세레나데의 중심을 잡아준다. 숨 막히게 감동적인 발전부를 지나 악장의 결말에 이르면 목동의 뿔피리는 플루트의 가녀림으로 전환되어 소소하게 마무리된다.



[3악장 제 1주제]

1st Movement: Allegro molto

The first movement is characterized by a pastoral theme introduced by the viola and cello, soon joined by a hunting horn motif. This creates an idyllic image of the German countryside at dusk. The clarinet introduces a gypsy-like theme, and the movement progresses through a series of variations, showcasing Brahms' skill in thematic variation. The movement concludes with a coda that reinforces the main themes, bringing the pastoral scene to a tranquil end.

2nd Movement: Scherzo : Allegro non troppo - Trio : Poco più m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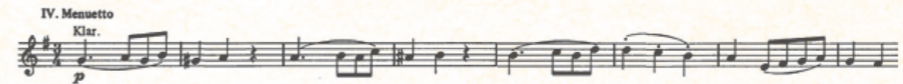
The second movement is a scherzo in three-part form, starting with a gentle unison string motif. This theme later reappears in Brahms' Piano Concerto No. 2. The scherzo's light, playful character contrasts with the more serious tone of the trio section, which features a complex interplay of rhythms and melodies. This movement highlights Brahms' ability to blend light-heartedness with sophisticated musical structures.

3rd Movement: Adagio non troppo

A dialogue between the clarinet and horn evokes a peaceful, nostalgic atmosphere. The lyrical melodies and rich harmonies reflect Brahms' emotional depth, creating a sense of longing and introspection. The movement's development section displays Brahms' skill in creating intricate variations on a simple theme, culminating in a serene and contemplative conclusion.

4악장 Menuetto I - Menuetto II

4악장은 본디 교향곡 3악장의 개념에서 시작되는데 바로크 미뉴에트를 오마주(hommage)하고 있다.



[4악장 미뉴에트 주제]

곡은 두 대의 클라리넷과 바순을 위한 삼중주로 시작하는데 이 아름다운 6도 병행의 첫 주제는 사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품 Menuet in C Major (K. 103 (61d) No.5)에서 차용된 것이다. 변주곡의 대가답게 두 번째 부분은 첫 주제를 훌륭하고 담백하게 전위, 발전시킨 것으로 다소 어두운 화성적 배경이 브람스의 애달프고 슬픈 감성을 잘 드러낸다.

5악장 Scherzo : Allegro - Trio

5악장의 또 다른 스케르초는 앞서 스케르초와 달리 고전 교향곡 3악장의 전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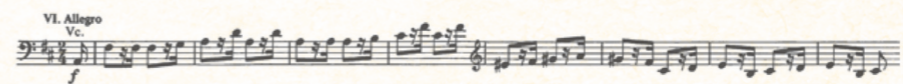


[5악장 스케르초 주제]

첼로와 호른의 듀엣에 이은 현의 튜비가 첫 부분을 간결하게 구성하면 앞서 미뉴에트의 주제가 변주되어 중반부를 멋지게 이룬다. 트리오는 베토벤 교향곡 5번 3악장의 '코끼리 춤'을 연상시키는데 첫 주제가 전위되어 하행하면서 대선율을 이룬다.

6악장 Rondo : Allegro

피날레의 론도주제는 Senne 숲속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사냥말의 경쾌한 발굽소리를 본 딴 듯 힘차다.



[6악장 론도 주제]

사실 2악장 스케르초와 이 마지막 악장의 웅장함은 가벼운 저녁 야외 음악이라는 세레나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며 오히려 교향곡의 형태를 엄두에 두고 전체 악장을 디자인하여 배치하려던 브람스의 작곡 초기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론도 주제에 이어 등장하는 현의 주요 주제는 1악장의 사냥 혼 주제의 변주로 곡 전체의 일관성을 완성시켜준다. 간결한 코다에서 주요 주제가 반복되면서 곡을 기분좋은 경쾌함으로 마무리된다.

4th Movement: Menuetto I - Menuetto II

This movement is a homage to the Baroque minuet, featuring an elegant triple-time dance. The charming interplay between clarinet and bassoon highlights Brahms' gift for melody and his respect for classical forms. The trio section provides a contrasting middle section, with darker harmonic undertones that add emotional depth to the otherwise light-hearted movement.

5th Movement: Scherzo : Allegro - Trio

Another scherzo, this movement adheres to the classical symphonic tradition. A robust duet between cello and horn introduces the theme, which is then emphasized by the full orchestra. The trio section recalls Beethoven's Fifth Symphony.

6th Movement: Rondo : Allegro

The finale is an energetic rondo, characterized by a lively theme that evokes the sound of galloping horses. This theme, a variation of the first movement's hunting horn motif, ties the entire serenade together. The movement's peppy rhythms and dynamic contrasts bring the piece to a joyful and exuberant close. The coda reinforces the main themes, providing a satisfying conclusion to Brahms' first orchestral work.

Johannes Brahms

Concerto for Violin & Cello “Double Concerto” in A minor,
Op. 102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02번

독일의 작곡가이자 첼리스트,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였던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그는 1887년 여름 스위스의 요세 도시 툰(Thun)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 일명 “이중 협주곡”을 완성한다. 이전에도 그는 빙하로 이루어진 툰 호수가 알프스의 산들로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도시의 절경(絶景)에서 다수의 실내악 곡을 썼는데 장려한 자연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 탓인지 이들 작품에서는 브람스 특유의 한(恨)과 슬픔의 감정이 다소 배제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 곡은 브람스의 마지막 관현악곡으로써 원래 그의 다섯 번째 교향곡으로 쓰일 예정이었다가 협주 교향곡(Concerto Grosso: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형태로 2인 이상의 독주자 그룹과 오케스트라로 구성되는 협주곡)으로 변경되었다. 바이올린과 첼로를 독주 악기로 선정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요아힘(Joseph Joachim, 1831~1907)과 브람스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음악 동료로서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함께 해온 사이였다. 요아힘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초연하였고 피아노 협주곡을 지휘하였으며 또한 브람스의 삶과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과의 만남을 중용하기도 하였다. 브람스는 요아힘의 좌우명 “Frei aber einsam”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을 가지고 바이올린 소나타(F-A-E Sonata, 1853)를 써서 요아힘에게 헌정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브람스의 좌우명은 “Frei aber froh” (자유롭게 그러나 즐겁게)이다.

하지만 이들의 우정도 위기는 찾아오는데 의처증이 있던 요아힘은 아내 아말리에(Amalie Joachim, 1839~1899)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오해하기 시작하였고 다툼은 급기야 1880년 이혼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를 좋아하고 특히 평소 요아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브람스는 이 둘 사이의 소원(疏遠)해진 관계와 오해를 풀어주고자 아말리에에게 장문의 편지로 위로하였는데 오히려 아말리에가 그 편지를 재판정에서 요아힘을 공격하는 증거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브람스와 요아힘은 결국 절교하게 된다. 물론 훗날 브람스와 요아힘 사이의 오해는 풀렸지만 서먹해진 관계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다. 화해를 위한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는데 브람스는 이 협주곡을 통하여 관계 회복을 꾀하였고 용기를 내어 요아힘에게 연주를 부탁하게 된다. 요아힘도 기꺼이 승낙하게 되어 이 둘은 7년 만에 한자리에 다시 모여 작품 활동을 재개하면서 음악을 통해 마침내 우정을 회복하게 된다. 곡은 요아힘에게 헌정되었다. 고전적 협주곡의 형식과 음악적 어법을 충실히 따른 가운데 곡 전체는 두 사람의 우정과 대립, 오해와 갈등의 해소 등을 음악적으로 훌륭하게 묘사한다. 두 독주 악기는 각각 요아힘(바이올린)과 브람스(첼로)를 대변하는 듯 보인다. 두 악기가 각 악장의 주제구(主題舊)를 풀어가는 방법에서 두 음악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 또한 흥미롭다.

Johannes Brahms

Concerto for
Violin & Cello
“Double Concerto”
in A minor, Op. 102

Johannes Brahms (1833-1897), a distinguished German composer, cellist, pianist, and conductor, wrote his 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in A minor, Op. 102, during the summer of 1887 in the picturesque town of Thun, Switzerland. Known for its stunning scenery, Thun had inspired many of Brahms’ chamber works. This concerto, often referred to as the “Double Concerto,” stands as his final orchestral composition. Initially intended to be his fifth symphony, Brahms transformed it into a concerto grosso, featuring violin and cello as solo instruments. The piece holds a deep personal significance, as it was composed to reconcile with his estranged friend, violinist Joseph Joachim, after a fallout stemming from Joachim’s tumultuous divorce.

1악장 Allegro

대 자연의 장엄함을 찬양하는 듯한 오케스트라의 짧은 합주(제 1주제 동기)가 절도 있게 등장하면 두 독주악기의 카덴차(Cadenza)가 뒤를 잇는 것이 인상적이다.



[1악장 도입부 제 1주제 동기]

마치 두 사람의 격정적인 언쟁을 묘사하듯 대립적인 구도로 진행되는 것이 재미있다. 고전 협주곡의 형식을 따라 오케스트라는 두 주제를 모두 연주하고 나서 독주 악기가 제 1주제를 반복하는데 이때 역시 두 악기는 마치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낭 사진행(斜進行, 서로 반대방향으로 선율이 진행)이 프레이징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만연하며 한 독주 악기에 의해 먼저 연주됐던 악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뒤 이은 독주자가 동기를 끊어먹으며 등장하는 소위 “cut in” 기법이 정신없는 논쟁을 격정적으로 이끈다. 그런데 다음에 등장하는 제 2주제가 매우 독특하며 아름답다. 두 캐릭터가 금세 화해라도 한 듯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데 사실 이 주제는 두 음악가가 어린 시절 즐겼던 비오티(Giovanni Battista Viotti, 1755~1824)의 22번 가단조 바이올린 협주곡에서의 1악장 주제와 요아힘의 좌우명 “F-A-E”(Frei, aber, einsam)을 음악적 동기로 치환하여 순서를 바꾼 전조된 “A-E-F”와의 조합(E-B-C)으로 만들어졌다.



[1악장 제 2주제]

발전부는 제 1주제의 동기로 구성되어 리듬적으로 박진감이 넘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재현부에서는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의 조성(調聲)적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 뒤 이은 코다에서는 1,2 주제 모두를 다루며 마지막 A음 합주를 향해 내달리며 악장이 끝난다.

2악장 Andante

알프스 목동의 호른 소리와 같은 목가(牧歌)적인 울림이 향수(鄉愁, Nostalgia)를 자아내고 나면 1악장의 대립구도는 온데간데없이 두 악기는 아름다운 주제 선율을 제창(unison)한다.



[2악장 주제]

주제 동기는 (A-D)-(E-A)-(F#-D)-(B-A)의 8개음의 아르페지오(arpeggio) 음형으로 시작되는

1st Movement:
Allegro

The concerto opens with a majestic orchestral introduction, soon followed by an impressive cadenza for the solo violin and cello. This movement portrays the intense and passionate exchanges between the two solo instruments, symbolizing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Brahms and Joachim. The orchestra introduces two main themes, which are then elaborated upon by the soloists in a manner that resembles a spirited argument. The interplay between the violin and cello is marked by contrasting phrases and dramatic “cut-in” techniques, reflecting the tensions and eventual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musicians.

2nd Movement:
Andante

In contrast to the vigorous first movement, the second movement presents a serene, pastoral melody that evokes the tranquility of the Swiss Alps. The violin and cello share a lyrical theme in unison, symbolizing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This movement, with its nostalgic and introspective character, captures the essence of the renewed friendship between Brahms and Joachim. The theme is based on a transformation of Joachim’s personal motto “Frei aber einsam” (Free but lonely), translated into a musical motif that subtly underscores the entire movement.

데 마지막 (B-A)가 동기의 종지(終止)적 역할을 하고 있고 두 개 음의 “calling”형태로 시작된 처음 두 마디 패턴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동기 역시 “A-E-F” 모토 즉 요아힘의 좌우명에서 기인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듯 아름다운 선율은 요아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으리라 보인다. 중반부에 등장하는 당김음(Syncopation) 음형과 솔로의 셋잇단 음의 복잡한 형태가 어지럽지만, 다시 등장하여 다독여주는 첫 주제의 평화로움이 이들의 우정을 재확인 시켜주는 듯 포근하다.

3악장 Vivace non troppo

마치 두 사람의 화해를 축하하듯 헝가리 집시 음악 풍의 리듬이 경쾌하다.



[3악장 론도 주제]

곡은 론도(Rondo) 형식 즉 특정 주제가 각 단락마다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으로 이 반음계적 론도 주제 역시 요아힘의 모토 “A-E-F”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아힘은 헝가리 태생의 유대계 오스트리아 인으로서 이 집시 풍 주제는 요아힘에게 주는 브람스의 음악 선물이라 볼 수 있다. 두 독주 악기는 화려한 기교를 마음껏 뽐내며 리듬의 향연에 도취되는데 악장 전체를 통틀어 소위 쉬는 프레이즈는 고작 두 부분으로 각각 12마디를 넘기지 않는다. 거침없는 화성(和聲)적 움직임과 리듬의 변칙이 흥겨움을 돋구어 주고 한편 반복되는 론도 주제는 흐트러진 옷차림을 가다듬고 원위치에서 춤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는 듯 보이는 것이 참 재미있다. 코다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F-E-A”음형을 통해 두 사람의 우정의 회복을 확인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글: 박희정 (지휘자/작곡가)

JOHANNES BRAHMS



3rd Movement: Vivace non troppo

The final movement is vibrant and rhythmic, inspired by Hungarian gypsy music, a style Brahms greatly admired. This lively dance-like movement symbolizes the joy and celebration of the restored friendship. The violin and cello engage in a playful and virtuosic dialogue with their technical prowess and musical chemistry. The movement culminates in a determined and triumphant conclusion, reflecting the ultimate reconciliation and enduring bond between the two musicians.

Conductor & Composer Heejung Park



심포니송의 프로들



예술감독	함신익				플루트	김소희	하중수					
악장	송지원				오보에	윤민규	이혜빈					
바이올린	박진형	김민하	김정현	김지연	클라리넷	김민찬		김나윤				
	김희영	문수빈	박승훈	박지윤		바순	김윤지		김지혜			
	방지원	선유란	오하은	옥영미			호른	조종현	노경오	한윤호	허건행	
	전지은	정예린	정재희	조성인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최보경	최주은	홍예슬									
비올라	노소희	송예은	안예림	윤소은	퍼커션	남기랑						
	장윤정	정민	정채윤	조혜민		크리에이티브팀	신현숙	고부현	남기랑	유소정		
첼로	허규희	노지영	노혜린	이혜인			이민하	이수민	이혜근	이창훈		
	오소연	정다인	정혜솔	홍지희								
더블베이스	이지무	고부현	강선률	강지나								
	윤영진	이요한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바이올린
수진수

REMEMBERING DVOŘÁK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

드칭 웬 | 드보르자크를 기리며 세계초연 위촉곡
Deqing Wen | Paraphrasing Dvořák World Premiere

드보르자크 | 바이올린 협주곡
Dvořák | Violin Concerto in a minor

드보르자크 | 전설
Dvořák | Legends

09.26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지휘 함신의

피아노
영영

RACHMANINOFF SPECIAL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4 in g minor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Rachmaninoff | Symphony
No. 2 in e minor

10.21
MON 7:30PM

LOTTE
CONCERT HALL

지휘 함신의

SCHUBERT AND BRAHMS

피아노 박종해

슈베르트와
브람스

슈베르트 | 교향곡 제4번 '비극적'
Schubert | Symphony No. 4
in c minor 'Tragic'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rahms |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11.28

THU 7:30PM



지휘 함신의

01.11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영웅적 신년음악회
Heroic New Year Concert

-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 베토벤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김응수

02.22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
Schoenfield & Smetana

- 완필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개의 우화
-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발레
- 지휘 함신의, 피아노 김태형



03.21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쇼스타코비치와
멘델스존

Shostakovich & Mendelssohn

-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가단조, '스코틀랜드'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한수진

04.19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베토벤과 베토벤
Beethoven and Beethoven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 지휘 함신의, 피아노 김준형

05.21

TUE 7:30PM
예술의전당

베토벤과 말리의
부드러움을 찾아서

O! Sweet Beethoven and Mahler

- 말리 교향곡 제5번 올림다단조 중 '아다지에도'
- 베토벤 콘서트 아리아, '아! 못 믿을 사람이여'
- 말리 교향곡 제4번 사장조
- 지휘 함신의, 소프라노 양귀비

2024 마스터즈 시리즈에

SYMPHONY S.O.N.G 2024 MASTERS SERIES

함신의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당신을 초대합니다

06.27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브람스 페스티벌
Double the Brahms

- 브람스 이중 협주곡 가단조
- 브람스 세레나데 제1번 라장조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김다미, 첼로 주연선

09.26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
Remembering Dvořák

- 드칭 웬 드보르자크를 기리며 (세계초연 위촉곡)
-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
- 드보르자크 '전설'
- 지휘 함신의, 바이올린 박진수

10.21

MON 7:30PM
LOTTE CONCERT HALL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ff Special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단조
-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마단조
- 지휘 함신의, 피아노 유영욱

11.28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슈베르트와 브람스
Schubert and Brahms

- 슈베르트 교향곡 제4번 다단조, '비극적'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라단조
- 지휘 함신의, 피아노 박종해

12.27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송년음악회
베토벤 합창교향곡 작곡
200주년 기념 연주

2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Choral'
Symphony

-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합창'
- 지휘 함신의 국립합창단
- 소프라노 오미선
-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 테너 이명현
- 베이스 정인호

2024년 마스터즈 시리즈 회원권
구매 안내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6월 31일까지 구매 시	10%	R석 4회	400,000원 ▶ 360,000원
		S석 4회	280,000원 ▶ 252,000원
		A석 4회	200,000원 ▶ 180,000원



티켓 구매 요령

- ① 전화구매
02-549-0046
-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 ③ 우편 제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36 (논현동 EG빌딩)
B1 심포니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input type="checkbox"/> R석 <input type="checkbox"/> S석 <input type="checkbox"/> A석	<input type="checkbox"/> 현장수령(추천) 수령 방식 <input type="checkbox"/> 자택 또는 회사 주소	_____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베르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L
A
H
Y
E
O
N

성형 MOLDING

피부 SKIN

메디스파 MEDISPA

비만 OBESITY

두피 SCALP

항노화 ANTI-AGING

지방성형 A FATTY MOLDING

성의학클리닉 A SEX CLINIC

세포재생전문클리닉 CELL REGENERATION CLINIC

나의 자신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Tel. 02.3445.1155 Fax. 02-3446-6885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도산대로 420) 청담스퀘어 5층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FA부분

이차전지 장비, 카메라모듈장비, AMR(Autonomous Mobile Robot),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Linear System, Probe, Laser

-BIO부분

보툴리눔 독소제제 'PROTOXIN' 을 이용한 치료제, 해독제, 바이오베터 제조/생산/판매.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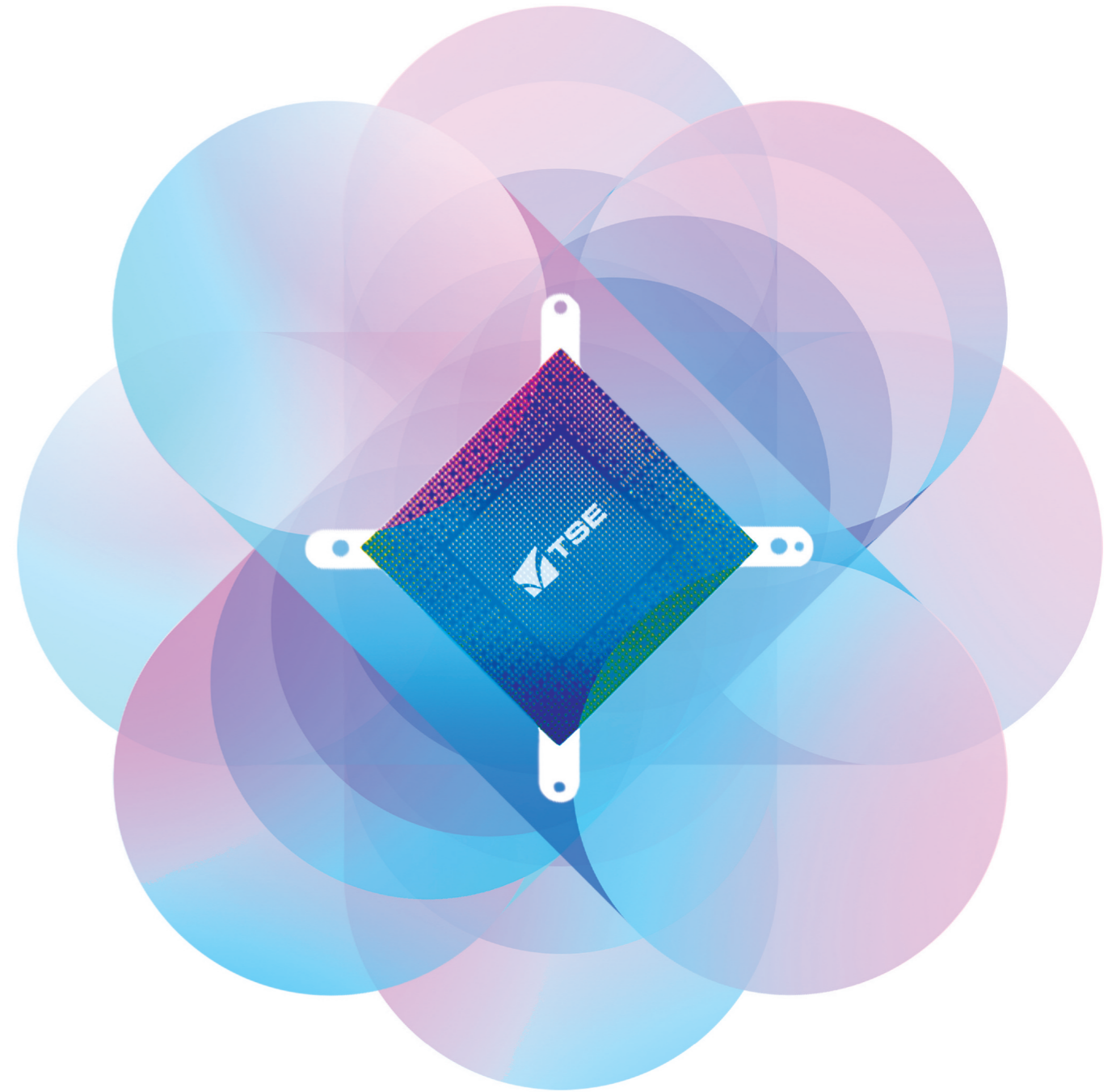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 판매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OFFLINE SHOP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